

발행일:2012년 3월 15일(매월 1회 WEB 발행)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의 후쿠시마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본 정보지의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 포르투갈어판, 타갈로그어판, 프랑스어판은 당 협회 HP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재) 자치체국제화협회 조성사업】

후쿠시마의 풍경



고오리주쿠 히나메구리 (고오리마치 2012.2.17 촬영)

고오리마치에서는 마을 안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고오리주쿠 히나메구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점포 앞에는 히나인형과 사투보보인형이 전시되어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배말 제염작업 (이다테시 2012.2.24촬영)

작년에는 방사선의 영향으로 재배, 출하를 할 수 없었던 과수농가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안전한 과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농가가 하나가 되어 줄기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송국 취재단 (후쿠시마시 2012.2.25 촬영)

지진발생 1년후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하여 중국의 방송국이 후쿠시마에 왔습니다. 당 협회 이외에도 부흥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단체와 유학생들을 취재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목소리

이시다 미유키 (타무라시거주 여성)

예전부터 참식을 예정하고 있었던 제사가 시가의 친정집에서 있어서 3월 16일에 아이 셋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4월 1일에 타무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시작된 것은 생활패턴을 원래대로 돌리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진으로부터 1년이 지나 생활은 평소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 수입은 격감했고 대충 생활은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까지 눈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쓰나미로 많은 걸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들다고 할 수는 없다, 힘을 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언젠가는 폭발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미카미 히로시 (스카가와시거주 남성)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안지 10 일 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의 친정이 기타큐슈시여서 아내만 피난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결과, 같이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거라는 생각에 계속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임신부의 내부피폭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아내가 먹는 물과 음식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8월에 친정으로 갔고, 10월 25일에 무사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자 모두 건강했고 11 월에는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유를 먹고 있는 관계로 물론 아이의 내부피폭에는 주의를 하고 있지만, 방사선의 감수성도 스트레스 때문에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호니 손 (후쿠시마시거주 캐나다출신 남성)

원전사고에 관해서는 아내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하여, 결국 정원과 건물의 제염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만 미나미아이즈의 할아버지 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레벨이나 집의 제염 등 아직도 머리 아픈 일들뿐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사고가 난 원전 이름이 “후쿠시마”인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참사에 후쿠시마현 전체가 말려들었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친구와 가족이 있는 후쿠시마가 정말 좋습니다. 집도 일도 중요하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음식의 방사능 측정의 개선과 철저한 제염작업이라는 노력에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정권에 의해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페이 스미에 (나미에초거주 중국출신)

3월 12일 밤중에 초사무소로부터 츠지마방면으로 피난하라는 무선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2~3일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침에 급한대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 가족모두가 피난했습니다. 그 후, 피난소를 전전하다 8월부턴 후쿠시마시내의 가설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인 아이들이 둘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채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피난과 익숙치 않은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의 생활, 새로운 학교 등으로 아이 나름대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미에에는 5년전에 새로 지은 집이 있고, 룬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했자 소용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